



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
술집·대담한 性

성교육, 보다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올해 16세인 고복차림의 남학생이 진료실로 들어선 뒤 잠시 머뭇거리고 없이 소변볼 때 요도가 따끔거리고 농이 나와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말한다. 진료실 밖에는 여자 친구 목소리가 들렸고 그 친구와 성관계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전혀 부끄럼 없이 하는 얘기에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병이 왜 생기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다.

성교육이란 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성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일반적인 생물학적 성지식 뿐 아니라 이성에 대한 태도와 행위, 남녀관계 및 인간관계 등의 의식도 가르치는 종합적인 인성 교육이다.

성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다르며 근대화 이전에는 성교육이 가장장적인 면이 강하고, 유교사상에 입각해 성에 대해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다시피 하였다. 근대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은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을 하면서 제기되어졌고 1983년부터 공식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었다.

최근에는 성교육제 등 급속적 내용이나 임신, 월경 같은 생리현상만을 가르치는 성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 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성문제에 대처하기도 어렵다.

이제 아이들은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접하고 있으며 신체 성장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내용도 이에 대응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의 내용은 자위행위, 성적 인장, 음란물, 이성교제, 성폭행 등 성문화와 성의 개념, 애정관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실질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하고 원치 않는 임신, 성병, 성폭력 등의 위험한 성으로부터 예방과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올바른 성지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교육이라면 흔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각해 어른이 되면 성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며, 성교육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나

이 증가에 따른 성적 흥미의 감소나 조루,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장애로 부인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끄끙거리거나 노인들의 성병이 사회문제화되기도 하는 상황은 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신체변화와 시대에 따른 성의식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성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므로 부모의 건전하고 밝은 성관념이 중요하며 이는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므로 부모가 가장 훌륭한 성교육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은 더 이상 감춰야 하는 부끄러운 욕망이 아니며 금기시하거나 억압해야 하는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성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특징이 있다. 왜곡되고 과장된 성의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지식을 주기 위한 주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윤리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명비뇨기과원장>

리빙 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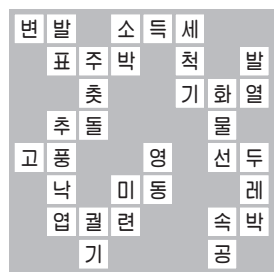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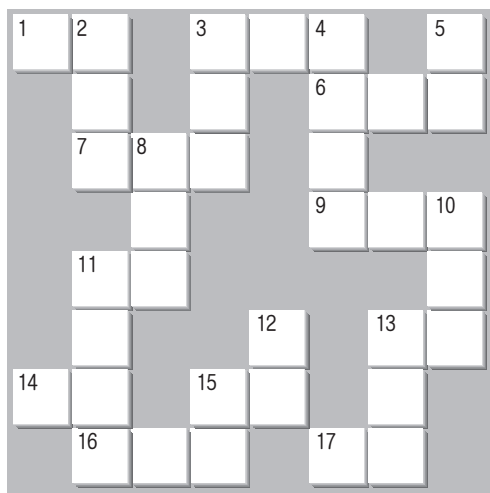
눈썹정리하기

◇숏컷머리 눈썹

술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눈썹 라인을 그대로 살리는 게 좋다.

- 1. 손가락으로 눈썹 결을 정리한 다음 눈썹 라인 밖으로 빼져나온 부분을 눈썹 가위를 이용해 정리한다. 손가락으로 눈썹을 살짝 누른 채 자르면 쉽다.
2. 눈썹 가위를 부분부분 잘라내면서 술을 정리한다. 이때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자르면 눈썹이 불룩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눈썹 빛을 대고 자르면 깔끔하게 자를 수 있다.
3. 아이브로 새도를 브러시에 묻혀 눈썹 산부터 끝으로 빼주면서 선을 그린다. 끝이 가늘고 사선으로 된 브러시가 사용하기 간편하다.
4. 투명 마스카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결을 따라 정리해준다.

함께 풀어봅시다 < 331 >



<함께 풀어봅시다 330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박수완·순천시 서문로
김인순·신안군 압해면 신장 2구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 가로풀이

1.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봄. 또는 앞으로의 일 등이 잘되어 갈 것으로 여김.
2.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려는 열의.
3.사장이나 기관장 등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지속매 일 스케줄 등을 보고하고 기밀문서나 사무를 맡아보는 직위의 사람이 있는 방.
4.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해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를 이르는 외래어.
6.시장, 가게 등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음. 유럽 상인들은 휴가 기간에 일제히 ~를 한다.
7.호랑이의 털가죽을 이르는 말.
8.클이나 그림 등을 신문이나 잡지에 실음.
9.손수 쓴 글씨. 권 도원수는 글씨 ~로 당장을 써서 파발 편에 보냈다.
10.일정한 친척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

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권리.
17.토의하거나 조사하여야 할 사실, 또는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 교육과학기술부의 ~이 국무 회의에 상정됐다.

↓ 세로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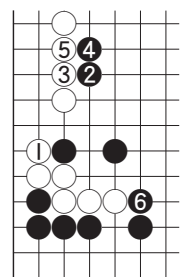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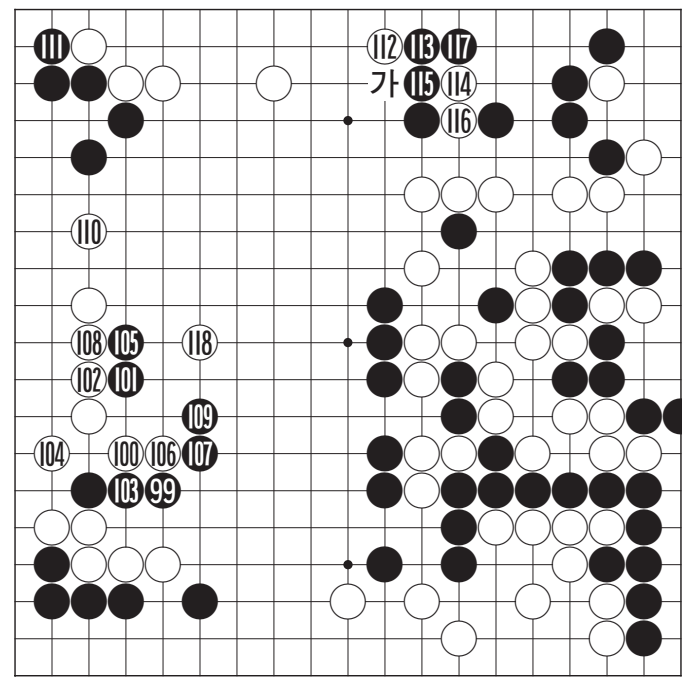
1.시살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등의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 이번 달에는 ~가 너무 많이 나왔다.
2.학교에서 교사가 교재를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곳.
3.월가가 왕성하고 열렬한 의기를 가진 사나이로 이르는 말.
4.같은 종류의 사물 가운데 큰 규격이나 규모. ~ 트럭.
5.소형.
6.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읊은 시.
7.인상을 기념하기 위해 수여하는 값.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가 수여된다.
8.군사력을 배경으로 정적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재상. 흔히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를 가리킨다.
9.윗사람의 일을 도우거나 모심. 부장은 능력 있는 과장의 ~을 받아 추진했다.
10.좋은 조건.
11.약조건.
12.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해 갖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영통한 들여다 보기

페어부 결승 6보(99~118)

白 함영우·송예솔 黑 오창석·이수빈
(전라남도) (경기도)



<참고도>

는 결승전에 진출한 팀들 담겨 거의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다.

백 100으로 응수한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고분고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흑 2, 4를 선수하고 6으로 두게 되는데 전남 팀은 이 그림을 싫어한 것으로 보인다.
백 100으로 두면 집으로는 다소 손대다. 그러나 이 그림은 모양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운영이 서로가 어렵게 된다.
백 112는 좋은 착상인데 송예솔양이 백 114로 들여다 본 수가 영통했다. 이 수로는 그냥 '가'를 선수할 자리였다. 흑 117까지 백이 손해를 보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5일(음 11월 18일 己丑)

运势 column with zodiac signs and daily forecasts. Includes signs like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멘트'.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English: 'When are we leaving for New York? 언제 뉴욕으로 떠날 거죠?' 2. Korean: 'ky(くうきよめない)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 3. Chinese: '你们班谁跑得快? 你们班谁跑得最快?' 4. Japanese: '浮沈運數(부침지삭) 뜰 부, 가라앉을 침, 더딜 지, 빠른 삭'.